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강완숙 골룸바

(1761-1801)



강완숙은 1761년 충청도 내포 지방 양반 가문의 서녀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정직했던 그는 혼인 후 천주교에 입교하였고,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 흥필주에게 교리를 가르쳐 신앙으로 이끌었다. 신해박해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옥에 갇힌 신자들을 돌보았으며, 이후 시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한양으로 상경하였다. 1794년 말 입국한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는 여회장으로 임명되었다. 1795년 을묘박해 때, 여성이 주인인 양반 집을 관헌이 수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주 신부의 피신처로 제공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강완숙도 붙잡혔다. 그 와중에도 주 신부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형리들은 그의 굳은 신앙심을 보고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감탄할 정도였다. 결국 그해 7월 2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의 나이 40세였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30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집회 35,15ㄴ-17.20-22ㄴ

화답송

시편 34(33),2-3.17-18.19와 23(◎ 7ㄱ)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역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쫓값을 벗으리라. ◎

제2독서

2티모 4,6-8.16-18

복음 환호송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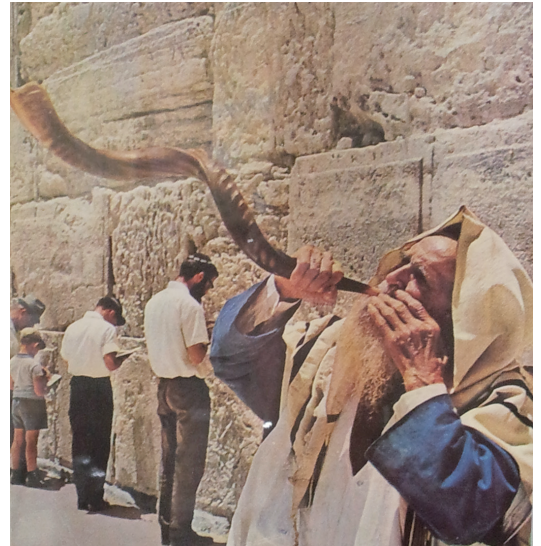
루카 18,9-14

영성체송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바리사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는 히브리어로 [페루썬]입니다. 현대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옛 종파인데, 오늘날 유대 종교인들은 모두 바리사이의 맥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루썬]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나는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율법에 규정된 온갖 부정함에서 분리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들, 특히 이교 문화에 젖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서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석하다’인데, 이는 율법을 풀어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리사이는 기원후 200년경 「미쉬나」라는 중요한 율법서를 엮어냅니다. 바리사이 전통에 따르면 율법은 두 종류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전달하신 오경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말씀으로만 전달받았다는 구전 율법입니다. 바리사이파는 이런 구전 율법이 오경을 설명하고 해석해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전 율법이 예수님 시대 이르러 방대해지자 ‘유다 하나씨’라는 라삐가 이를 「미쉬나」라는 책으로 편찬하였습니다. 이후 「미쉬나」를 풀이해주는 「탈무드」도 바리사이들이 엮어내게 됩니다.

그럼, 바리사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까요? 그건 마카베오기에 나오는 마카베오 혁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혁명의 결과로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후 하스모니아 가문이 왕권뿐 아니라 대사제직까지 겸하게 되자 ‘경건한 사람들’ 곧 “하시드인들”(1마카 2,42)이 반기를 듭니

다. 왜냐하면, 대사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문에만 제한된 것으로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발 세력 가운데 평신도가 주축이 된 이들이 ‘바리사이당’이고, 일부 사제들은 ‘에세네당’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발과 달리, 대부분의 사제와 예루살렘 유지들은 하스모니아 가문에 동조하면서 ‘사두가이당’을 형성하였지요. 신약성경 속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대립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사두가이들은 하스모니아 왕가와 타협하였고, 이후에는 로마의 식민 통치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가이들은 이교 식민 통치자들과 결탁한다는 혐의를 많이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두가이보다 바리사이를 선호하며 바리사이야말로 주님과 율법에 충성하는 이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자, 사제 중심의 사두가이파는 자연스럽게 몰락합니다. 이때부터 공식 유대교는 바리사이적 경향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 애쓰는데요, 이는 기원전 6세기 계약 불순종으로 바빌론에 멸망한 옛 기억 때문에,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나쁜 몸부림입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형식 위주로만 흐르거나, 온갖 부정함에서 멀어지려는 열정이 자기들만 의롭다고 자만하는 부작용으로 변질되기도 한 것입니다. 🕉



주교단과 그 단장인 교황

「교회헌장」 제22항

「교회헌장」 제22항은 '주교단의 본성과 그에 따른 권한(potestas, 권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무의 권한과 관련하여 중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 안에 있는 권한'(potestas in corpus Christi verum), 곧 성찬례와 관련된 '성사적 권한'이 우선이었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 있는 권한'(potestas in corpus Christi mysticum), 곧 교회와 관련된 '다스리는 권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무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18항에서처럼 '거룩한 권력'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거룩하게 하는 직무, 가르치는 직무, 다스리는 직무를 포괄하는 양 예를 돌보는 목자의 직무, 곧 사목적 직무가 중요시되었습니다.

22항의 첫 번째 단락은 주교단의 존재와 단체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하나의 사도단"으로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단체가 "주교단"입니다. 이러한 주교단의 단체성은 예로부터 주교 서품 등을 통해서 주교들이 서로 유대하고 교황과 친교를 이루던 옛 규율과 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공동으로 결정했던 세계 공의회들에서 드러납니다. 공의회는 주교단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으로 "성사적 축성"의 힘과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를 말합니다. 성사적 축성이란 봉사 직무가 그리스도의 봉사를 대표한다는 의미이고, 교계적 친교는 봉사 직무가 다수의 주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주교단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공의회는 주교단이 단장인 교황과 함께할 때만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목자

와 신자에 대한 교황의 수위권은 온전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인 교황은 "최고의 보편 권력"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이'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하는 권한의 자유로운 행사를 의미합니다. 주교단은 교도권과 사목적 통치권에서 사도단을 계승하며, 단장인 교황과 함께 보편 교회의 최고 권력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황 없이는 그렇지 않으며,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교단의 다수성은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고, 한 교황 아래 모여 있기에 단일성을 보여줍니다.



주교단은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교회에 대한 최고 권위를 갖는다.
베드로좌가 있는 제단을 향해서 입당행렬을 하는 주교단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한 주교단의 고유한 최고 권력은 세계 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를 통해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되며, 이 역시 교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확인하는 것은 교황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교단은 교황과 함께 동일한 합의체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단장인 교황이 요청하거나 승인하거나 자유로이 수락하여야 합니다. ●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마르 2,4)

임종을 앞둔 80대 여성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방문이었다. 임종 병실에 들어서니 창가 쪽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의 남편분이 일어나 휠체어를 타고 환자의 곁으로 다가오셨다. 그러자 가족들도 자연스레 환자 주위로 모이기 시작했다. 병자성사를 청한 환자의 아들은 어머니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하며 목이 메었다. 그러자 남편분이 환자에게 말을 건넸다. “신부님 오셨어. 눈 좀 떠 봐.” 그럼에도 환자는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환자의 상태와 모여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니 병자성사를 서둘러야겠다는 판단이 섰다. 성호경으로 시작해 병자를 위한 기도와 병자 성유 바르는 예식까지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제 충분히 기다릴 테니 환자분께 못다 한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시라고 하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맞은 편에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던 남편분이 먼저 입을 여셨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내와의 대화라기보다 주님께 말걸드린다는 기도의 반복이었다. ‘충분히 기다리겠다는 말을 괜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야 기도가 끝났다.

다음 차례는 환자의 큰딸이었다. “엄마, 사랑해. 그동안...” 울먹이며 말하던 딸이 갑자기 말을 멈췄다. 끝난 줄 알았던 아버지의 기도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아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씀하셨다. ‘혹시 치매 증상일까? 다른 가족들도 이야기하도록 그만 말씀하시라고 해 볼까?’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한동안 기다리던 딸이 목소리를 조금 높여 말을 이었다. “그동안 사랑해 줘서 고마워. 나도 얼마처럼 애들 사랑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우리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 이어서 큰아들이 환자의 머리맡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

여긴 내가 알아서 잘 챙길게.” 이런 식으로 막내딸까지 모두 다 마지막 인사를 했다. 환자의 남편분은 그동안에도 중얼거리듯 무슨 말을 계속하고 계셨다.

병자성사를 마치려고 나는 다시 환자의 곁으로 다가섰다. “하느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중얼거리던 남편분이 명료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웅얼거리는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내 귀에도 들어왔다. “여보, 이제 신부님께서 곁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셔. 아까 마지막에 당신 끌어안고 울기만 했던 건 막내야.” 환자의 남편은 눈을 뜰 힘도 없는 아내를 위해서 누가 말하는지 작은 소리로 일러주고 있었던 거다. 그건 ‘사랑의 안내’였다.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환자에게 눈에 보이듯 일러주는 아버지의 자상한 통역으로 가족들은 어머니와 더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진짜 웅얼거리던 건 바로 나였다. 눈과 귀를 열고 있으면서도 남편분이 주님과 함께 가족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혼자 별생각을 다 했으니 말이다. 나의 주님께서서는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환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내려보내는 남편을 힘껏 도와라고 나를 보내셨다. 하지만 자기만 돌봄가라고 착각한 나는 맞은 편에서 들것 한 귀통이를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하던 남편분을 외려 휘방꾼으로 여기며 그 돌봄을 방해할 뻔한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를 초대하는지’를 알려주셨기에, 이제 나는 환자를 누인 들것 한 귀통이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오늘도 나는 주님 앞으로 환자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도우려고 그들이 내어준 들것의 한 귀통이에 서서 팔을 걷어붙인다. 🌀



교구 소식

한마음 사계 피정 - 12월 (대침묵 피정)

주제 성경으로 배우는 하느님의 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일시 12/5(금) 16시 ~ 7(주일) 13시
강사 김효준 레오 신부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2026년 신앙교육원 18기 신입생 모집

의정부본원	오후반	화·목	14시~16:10	신앙교육원	정규과정 2년제 4학기
남양주본원	저녁반	수·금	19:30~21:40	지금동 성당	한 학기 4과목 12주간 수업

과목 신·구약 성경과 가톨릭교회의 교리
회비 학기당 40만원 (분납 가능)
※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접수 각 100명 선착순 모집 (예약금 5만원)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교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11/2(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1/7(금) 14: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 선종하신 교구사제와 성소후원회원을 위해서 연도(미사전)와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구 청년 11월 프로그램 안내

풋살 대회 참가 모집

일시 11/15(토)

장소 중산 AoA 풋살 스타디움

신청 ▶



노들담 수녀회와 함께하는 <대림 피정>

일시 11/29(토) 19시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주제 대림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2025년 본당사회사목분과 연수

일시 11/15(토) 09:30~16시

주제 현대 사회 안에서의 교회 - 사회사목분과의 역할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통나무강당

접수 11/7(금)까지

문의 031-850-1472 사회사목국 ※ 기타 공문참조

CPE(임상사목교육) 봄학기 - 이웃과 자신을 위한 영적돌봄 교육훈련

기간 2/23~6/23, 매주(화) [16주간]

장소 의정부교구 CPE센터 (교구청 별관 2층)

정원 선착순 6명 / 회비: 90만원

문의 010-2235-2117



기억합니다.

10월 27일은故 이사응 안토니오 신부의
18주기입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헤세드 청년 성령 묵상회

날짜: 11/1(토)~2(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만 45세 이하 모든 청년

회비: 1인 10만원

문의: 010-9574-6469 김영주 메히틸다

예수회 말씀의집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8일: 11/16(주일)~25(화), 12/10(수)~19(금)

단기: 12/1(월)~4(목) [3박4일]

문의: 031-254-8950 말씀의집

위령성월맞이 위로와 희망의 음악 피정

일시: 11/1(토) 19시 / 장소: 신원동 성당

강사: 김수연 클라우디아 (바이올리니스트)

내용: 돌아가신 고마운 영혼들의 안식과 남겨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받는 시간

제주 산들평화순례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위령성월피정: 11/2(주일)~4(화)

제주순례: 12/6(토)~8(월), 12/12(금)~14(주일)

추라도 성지순례: 11/22(토)~25(화), 3/5(목)~8(주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일몰-일출): 12/31(수)~1/3(토)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9(금)~11(주일),

1/15(목)~18(주일), 1/23(금)~25(주일),

1/30(금)~2/1(주일), 2/6(금)~8(주일),

2/22(주일)~24(화), 2/27(금)~3/1(주일)

문의: 064-732-4702 (2026년 접수중)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0/28 이상기 회장, 11/4 김현우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ICPE 오마이갯 오마이바다 피정

날짜: 11/14(금)~16(주일), 합정동 마리스타

문의: 010-7169-9466, ICPE카톡 플친

2025 성령새신 전국 대피정

일시: 11/15(토) 09시~17:30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브리지 맥켄나 수녀 (말씀과 치유 은사자)

미사: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대상: 모든 교우

주관: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문의: 02-777-321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성지순례(추라도 포함): 12/1(월)~3(수)

자연순례: 11/10(월)~13(목), 12/5(금)~7(주일),

12/13(토)~15(월), 12/19(금)~21(주일)

연말연시피정: 12/31(수)~1/3(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12/10(수) 17시 ~ 14(주일) 16시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집

동반: 이근상 신부 (예수회)

회비: 40만원 / 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문의: 064-739-095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원 무료 피정

일시: 11/7(금) 10시~16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

주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루카 19,9).

강사: 김성대, 권태문 신부

미사: 양창우 요셉 신부

신청 및 문의: 02-929-2977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1/14(금)~22(토), 12/5(금)~13(토)

부부힐링피정: 12/19(금)~21(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가정선교회 11월 피정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11/1(토) 김성기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11/5(수) 한영희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1/15(토) 이창진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6:50 / 장소: 가톨릭회관 1,3,7층 강당

치유·회복을 위한 특별대피정:

11/30(주일) 09:30, 이보 빠비치 신부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교회사 안에서 영성

1차: 12/17(수) 15시 ~ 18(목) 13시

2차: 1/7(수) 15시 ~ 8(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12만원,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 (문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첫토요 성모신심 미사

일시: 11/1(토) 09:20~12시 (10시 미사)

장소: 일산 성당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7)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2025 한마음 수험생 가정을 위한 피정

일시: 11/13(목) 09:30~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대상: 수험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가족

회비: 1인 2만원 (점심식사 포함)

※ 피정비 4만원 중 2만원 청소년사목국 지원

준비물: 미사 준비, 묵주, 개인 컵이나 텀블러

문의: 031-840-0018 (내선 201)

성경 치유 대피정

일시: 11/10(월) 10시~17시 (점심 무료 제공)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섬

(중동역 5분 거리)

강사: 송봉모 신부 (강의·미사), 한영임 회장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0/31(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강사: 차선미 스텔라 회장 (인천교구)

주제: 성녀 클라라

문의: 010-2127-0032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향심기도 소개 강의

일시: 11/7부터, 매주(금) 14시~15:30 [4주간]

장소: 영성센터 A313호 (구.계성여고)

주제: 향심기도 / 내용: 소개 강의

강사: 이승구 신부 (서울대교구)

대상: 누구나 / 회비: 1만원 (4회)

문의: 010-4565-8898

가톨릭대학교 2026 전기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접수: 11/3(월)~14(금) 17시

전형: 12/1(월) 14시

문의: 02-3147-8156 교학팀

02-3147-8664 조교

예수고난회 동반자회 8기 모집

예수그리스도 고난수도회 재속3회(동반자회) 8기

접수: 12/7(주일)까지

자격: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남녀 신자

문의: 010-7553-4672 담당자

02-990-1004 우이동 명상의집

황사영순교순례지 사무장 모집

근무: 주 30시간 (수~주일, 09시~16시)

임금: 교구 임금기준

서류: 이력서, 자격증명서

접수: 우편 (10/28 우체국 직인까지 유효)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70

※ 제출하신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모집: 영양조리반

업무: 전처리, 조리

근무: 08:30~17:30, 주5일 (변동근무)

문의: 031-840-0018 (내선104)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접수: 10/27(월)~11/21(금) 17시

제1과정 (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 (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 50% 장학금 혜택)

문의: gscl.catholic.ac.kr

백석동 성당 교종미사(10시) 지휘자 모집

연습: (목) 20시, (주일) 09시

자격: 전례음악을 이해하고 있으며 성가대를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경험자

서류: 세례증명서, 이력서 (학력과 일반음악 활동

및 전례음악 활동 경력 포함), 자기소개서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musiacal@uca.or.kr

문의: 031-908-6811 백석동 성당 사무실

생태영성학교- 기본과정 3기

일시: 11/1~12/6, 매주(토) 10시 미사 후

장소: 평내 성당

주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이해

준비물: 회칙 「찬미받으소서」, 개인컵

회비: 3만원 / 접수: 10/31(금)까지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한마음 독서산책 참가자 모집

일시: 11/1(토)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용: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기며 독서의 재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야외활동

문의: 031-840-0018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종미사 성가단원 정기 모집

연습: 매주(목) 20시, (주일) 교종미사 전

대상: 의정부교구에 교적을 둔 만 60세 미만 교우

오디션: 성가 1곡

문의: 010-6802-8014 모니카성가대 단장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안내 · 기타 ▶▶

다 함께하는 감사와 힐링의 천사 음악회

자전거 탄 풍경 및 유럽에서 수학한 성악가 외

성가, 가곡, 팝송, 포크송, 트로트 등

일시: 11/16(주일) 16시 (90분)

장소: 호원동 성당 대성전 (무료)

문의: 010-8879-3055 (누구나 환영)

가톨릭신문 로고 & 제호 디자인 공모전

대상: 국내외 누구나. 개인 및 팀별 참가 가능

시상: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접수: 10/13(월)~12/19(금)

문의: 010-9935-7671

창간100주년 준비위 접수▶

**코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0(토) 남인도 성지순례 (7일, 350만원)

1/16(금), 2/6(금) 상해 성지순례 (4일, 119만원)

1/19(월), 2/22(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9만원)

3/11(수) 유럽 성모발현지 (10일, 475만원, KE)

3/23(월) 폴란드, 체코 순례 (9일, 395만원)

4/7(화), 4/8(수) 이탈리아 일주 (9일, 직항)

4/10(금) 산티아고 순례길 150km (13일, 590만원, KE)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8(월)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15(목) 베트남, 마카오 성지 (6일,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1(수) 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 (14일)

2/2(월)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3(화)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4/6(월)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3일)

4/13(월)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여행사619호

www.catholic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4(목)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2/14(토) 나가사키 (4일, 169만원)-구정연휴

2/23(월)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50만원)

3/10(화) 베트남 다낭 (5일, 160만원)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22(월)~12/26(금) 성탄 필리핀 (180만원)

1/15(목)~1/26(월) 이집트 (475만원)

1/27(화)~1/31(토) 베트남 중부 (178만원)

3/2(월)~3/12(목) 영국, 아일랜드 (680만원)

문의: 02-2281-9070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3/28(토) / 회비: 599만원 (+2,2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박미순 수채화 개인전 - 화폭에 담은 가을

일시: 10/25(토)~11/7(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추가하세요**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10월 28일은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입니다. 시몬과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일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도는 열두 제자의 명단에서 항상 앞뒤로 소개되는데, 마르코와 마태오 복음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 바로 앞에 “타대오, 열혈당원 시몬”(마르 3,18; 마태 10,3-4)이라 나오고, 루카 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루카 6,15-16)라고 나옵니다.



성 시몬 (라테라노 대성당)

시몬에게는 “열혈당원”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우리말로 같은 ‘열혈당원’이지만, 복음서가 쓰인 그리스어로 루카 복음에서는 [젤로테스] (ζηλωτής), 마르코와 마태오 복음에서는 [카나나이오스] (Καναναῖος)로 나옵니다. 이 두 단어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 ‘카나나이오스’를 열혈당원이라는 뜻의 아람어 [케나나]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걸로 여깁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가 종교심이 강한 열정적 자세 또는 광신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실제 열혈당원으로서 유다 민족주의 해방 운동에 가담하였기에, 이 별명이 붙은 걸로 봅니다. 열혈당원 시몬은 훗날 예루살렘의 주교로 활동하는 예수님의 친척 형제 시몬(마태 13,55; 마르 6,3)과 구별되는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시몬에 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서방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 때 천사에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집트에 갔다가, 유다 타대오와 함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갔으며, 페르시아에서 함께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고도 하고 톱에 잘려 순교했다고도 하여 그를 표현할 때는 십자가 또는 큰 톱이 같이 묘사됩니다.

유다 타대오는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과 이름이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그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루카 6,16; 사도 1,13)라고 소개하는데, 마르코와 마태오 복음은 그 명칭 대신 “타대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다식 이름과 함께 그리스식 이름을 갖는 일이 흔했으므로, 유다와 타대오는 동일 인물이라고 봅니다. 요한 14,22에 등장하는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 “타대오”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유다가 유다서를 썼다고 전해지지만, 최근 성경학계는 단지 그의 이름을 빌린 ‘가명 작품’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는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앞서 말한 바대로 시몬과 함께 시리아 등지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도 하고 참수되었다고도 하여 그를 표현할 때는 창 또는 도끼가 함께 묘사됩니다. ☸



성 유다 (라테라노 대성당)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8일 시문: 장직수, 조준섭 다두: 최성복

전례

- 11월 성모 신심 미사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성모 신심 미사는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며,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 위령의 날 첫째 미사 (미사 지향 있음)
미사 시간: 11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11월 2일 주일 오전 9시
합동 위령 미사 봉헌은 10월 26일 까지 미사 시간을 선택하여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령의 날 둘째 미사 (미사 지향 없음)
미사 시간: 11월 2일 주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11월 봉성체
일 시: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10월 26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양경희 루시아, 류은희 소피아	
11월 2일	주송자	오정화 아네스
	김순곤 라자로, 이경예 마르타	

우리들의 정성(10/13 - 10/19)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9건		715,000원
주 일 헌 금			1,197,000원
전 교 주 일	2차 헌금		752,000원

● 감 사 헌 금

오정화 아네스	200,000원
김지안 베로니카	50,000원
박준호 요셉	1,000,000원
이동준 요셉	200,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 지 / 단 체

●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10월 26일 오늘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남성 · 여성 레지오 단원 모집

남성 회합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여성 회합 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
본당 남성과 여성 레지오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문의, 연락 바랍니다.

